LOCAL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초록에 물든 '담양대나무축제' 글로벌 축제 도약

5일간 죽녹원 일원…일일 최대 2만여명 '인산인해'

야간 경관 '호응'…해외인플루언서·유학생 등 참여

담양 죽녹원과 관방제림 일원에서 열린 '제24회 담양대나무축제'가 세계인을 매료시키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6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 초록에 물들다'를 주제로 한 이번 담양대나무축제는 생태, 전통, 문화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형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해외 인플루언서와 유학생들이 개막식과 주요 프로그램에 대거 참여해 지역 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죽녹원과 축제장 일대, 관방제림에는 '대나무 소망등' 등 야간 경관이 조성돼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더했다. 죽녹원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되며 일일 최대 2만여명이 찾는 등 축제 기간 내내 인산인해를 이뤘다. 또 죽녹원과 메타랜드 입장권을 환급형 쿠폰으로 전환해 인근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으며, 주민들로부터도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먹거리 분야에서는 창의적인 콘텐츠가 돋보였다. 향토음식관을 통해 담양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죽순을 활용한 신메뉴 경연대회에서는 '들깨크림 죽순만두' 등 5개의 독창적인 메뉴가 선정돼 관람객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죽순의 다양한 활용성과 지역 식문화 발전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공연과 체험 행사도 풍성하게 펼쳐졌다. 이찬원, 김경호 밴드, 김태연, 황가람 등 대중가수들과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한 무대는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어린이날을 맞아 열린 '베베핀' 공연, 담빛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드론 체험 등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한 실천도 이어졌다. 군은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과 식중독 예방 점검, 다회용기 사용 권장 등 사전 조치를 철저히 시행했으며,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한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플로깅 이벤트'도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운수대통 대박 터트리기', '팬더를 이겨라' 등 현장 게릴라 이벤트가 축제장 곳곳에서 열려, 관람객에게 소소한 즐거움과 선물을 전했다.

정철원 군수는 "올해 대나무축제는 담양의 생태·전통·문화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담양만의 차별화된 매력으로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글로벌 명품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gwangnam.co.kr

화순, 청년정책·프로그램 호평

푸드트럭 지원 등 평가 우수상

화순군은 최근 화순군 청년센터(청춘들락)가 전남도 청년센터 성과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성과평가는 전남 18개 시군이 운영 중인 청년센터를 대상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청년센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춘들락은 화순군 청년들을 대상으로 토익, 한국사 교육 등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부동산, 투자, 요가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이며, 자기소개서 컨설팅과 모의 면접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구직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면접 정장 무료대여 서비스와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비 지원도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제출했던 청춘들락의 미디어공작소 운영,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 중소기업 취업 장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청년센터를 기반으로 한 청년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완도 '부모님과 함께 여행'

SNS 팔로우 이벤트 전개

완도군은 7~9일 3일간 '부모님과 함께하는 완도 치유 여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벤트는 부모님과 함께 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가족에 대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대상은 완도로 여행 온 가족 단위 관광객으로, 선착순 100팀에 카네이션이 증정된다.

카네이션은 '완도 치유 페스타' SNS 팔로우 후 완도에서 찍은 가족사진을 해조류센터 앞에 마련된 완도치유페스타 현장 안내소(해변공원로84) 방문해 인증하면 받을 수 있다.

완도치유페스타 현장 안내소에서는 관광객들이 여행하며 촬영한 사진을 전용 부스에서 인화해서 가져갈 수 있는 사진 인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완도를 방문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순천만국가정원이 5월 들어 나흘만에 관람객 23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은 관광객들의 모습.

순천만국가정원, '하루 10만명' 돌파

5월 나흘만에 방문객 23만명…체험콘텐츠 등 인기

순천만국가정원이 5월 들어 나흘만에 관람객 23만명을 돌파하며 다시 한번 저력을 입증하고 있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4일 하루 동안 순천만국가정원에 12만7000여명이 찾아 '하루 최다 방문 기록'을 경신했다. 하루 입장객 12만명 돌파는 지난해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을 직영으로 전환한 이후 최초 기록이다.

순천만정원은 올해 개장 114일째인 지난달 24일 100만 관람객을 돌파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나흘만에 관람객 23만명을 돌파했고, 1월 개장 후 이날까지 누적 관람객은 138만5309명을 기록했다.

연휴를 맞아 정원 곳곳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가족 단위 관람객은 물론 단체와 모임 관람객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자연 속에서의 휴식, 체험, 놀거리가 조화를 이루는 정원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정원이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경관으로 관람객을 끌어모았다면, 이번 연휴에는 시크릿 어드벤처, 어린이동물원, 테라피가든 등에서 진행된 풍성한 체험 콘텐츠가 관람객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았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고, 정원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관람객 증가로 지역 상권에도 활기가 돌면서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국가정원 인근의 연향3지구와 오천지구를 중심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은 긴 줄을 이루는 등 한시도 쉴 틈이 없다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노관규 시장은 "대한민국 생태관광 1번지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아 행복을 충전해 가시기 바란다"며 "삶에 쉼표가 필요한 순간, 정원 웰니스 관광 1번지인 순천만에서 아름다운 휴식을 취하고, 정원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광양,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명칭 공모

21일까지 접수…대상 100만원 등 상금 수여

광양시는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의 이름을 짓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은 역삼각형 철제 구조물로, 삼각형 경사로를 따라 정상까지 일곱 번 회전하며 올라가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빛과 철의 도시' 광양이 지닌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조형물이 들어서는 구봉산은 과거 봉수대가 위치했던 역사적 장소로, 광양제철소와 이순신대교, 순천, 여수, 남해 등 남해안권이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전망을 자랑한다.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1일까지 광양시청 홈페이지와 공모전 전문 플랫폼 '씽유', '씽굿' 또는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적합성, 창의성, 대중성, 활용 가능성,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심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시는 대상지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고 조형물의 의미와 상징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직관적이고 강렬한 인상의 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작 외에도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해 대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 우수상 4명에게는 각각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시는 선정된 명칭에 대해 네이밍과 로고를 포함한 상표권 일체를 등록하고, 지속적인 노출과 활용을 통해 조형물의 정체성과 상표 가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미란 광양시 관광과장은 "빛과 철의 도시 광양을 상징하는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은 시와 포스코의 영원한 상생과 협력을 기념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명칭 공모는 시민과 국민이 함께 조형물의 의미를 완성해 가는 소중한 과정인 만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제적 명칭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신안, 상반기 햇빛아동수당 1인당 120만원 지급

신안군은 올해 상반기 햇빛아동수당 지급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햇빛아동수당은 지난 2023년 연 4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지난해 연 80만원, 올해 연 12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올해 대상자는 총 2998명으로 지난해보다 110명이 증가했으며, 총지급액은 35억9760만원이다.

특히 대상 아동의 46%에 해당하는 1381명은 햇빛아동적금에 가입해 만기 시 7.5%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에서는 올해 햇빛아동수당 지급을 기념해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2023년 햇빛아동수당 지급 이후 아동수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은 큰 성과"라고 전했다.

신안=이훈기 기자